

<2013년 12월 14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기도 시간> 늦으면 약한 자에게도 당한다.
2. <기도 시간> 늦게 떠나면, 제시간에 먼저 떠난 어린아이에게도 당한다.
3. <기도 시간> 정한 시간으로 계산해서 행해야 된다.
4. <기도> 신의 소리는 귀를 막아도 마음으로 들린다.
5. 성자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다. '심정 일체' 되는 것이다. 심정 일체 되면 성자도 성령님도 너를 통해 말하니 네 육의 귀로 듣게 되고, 또 영으로 말씀하시니 영의 귀와 마음으로 듣게 된다.
6. 기도하지 않으면, 성자가 오셔도 일생 동안 줄 것을 안 준다. 무(無)로 지나간다.
7. 성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일생 동안 줄 것을 안 주고 그냥 지나가신다.
8. 육계에서나 영계에서나 보고 느끼지만, 육계에서 보고 느끼는 것과 영계에서 보고 느끼는 차원이 다르다. 육과 혼과 영의 지능의 차원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9. 세상에서 육이 성자와 사랑하며 산 자들만 영계에 가서도 그 영이 그 차원에서 성자와 사랑하며 산다. 나머지는 영계에 가서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산다.
10. 세상에서 육신이 살 때, 자기 영이 거할 영의 세계가 결정된다.
11. 세상에서 육신이 살 때, 육이 성자와 주를 어떻게 알고 대하고 행하며 살았느냐에 따라 그 영이 변화되고 형성된다. 영이 변화된 대로 그 차원의 영계 지역으로 간다.
12. 영이 한 번 그 차원의 영계에 가면, 거기서 더 잘하여 높은 차원의 영계에 가는 것은 정말 어렵다.
13. 땅에서 육이 투자한 대로 영이 천국, 혹은 기타 다른 영계로 가게 된다.
14. 투자한 대로 아파트로, 개인 별장으로, 다세대 주택으로 결정되어 가듯이, 육이 땅에서 투자한 대로 영이 거할 지역이 결정된다.
15. <천국>이라고 다 차원이 같지 않다. 여러 차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나님과 성령

님과 성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최고 높은 <천국 황금성 세계>에는 갈 수 없다.

16.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 목적’을 이룬 자들의 영만 <천국 황금성>에 가게 된다.

17.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으로 대했으니, 사랑으로 대한 차원으로 그 영을 <천국 황금성>에 데려간다.

18. 세상에서 사람끼리도 상대가 자기를 대하는 대로 자기도 상대를 그 선까지만 대해 준다.

19. 천국의 최고 높은 세계에 간 영들은 그 밑의 세계를 알고, 그곳에 갈 수도 있다. 차원이 높으니, 그 밑의 모든 세계도 다 알고 갈 수 있다. 그러나 그 밑의 세계에 간 영들은 위의 세계의 존재를 모른다. 차원이 낮으니, 차원 높은 세계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갈 수도 없다.

20. 건물로 비유하면, 100층에 있는 사람은 99층까지 다 거쳐 왔기에 그 밑의 층을 다 안다. 그러나 1층에 있는 사람은 2층부터 위에 있는 모든 층들을 모른다. 천국도, 다른 영계도 그러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계의 질서를 정해 놓으셨다.

21. 한 차원 높이는 것이 그리도 크고 엄청나다.

22. 월명동도 6차원을 높여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기까지 만들었다. 최고 차원으로 만드니, 그 밑의 차원의 것이 필요 없다. 최고 차원 하나만으로도 그 가치를 다한다.

23. 월명동의 <성자바위>도 성자는 아예 최고 차원으로 주셨다.

24. 월명동은 한 단계씩 차원을 높이면서 개발했다. 예를 들어 식당과 건물을 보자. 식당도 처음에는 천막으로 해 냈고, 건물도 가건물로 해 냈다. 그러다가 3차원으로 식당과 건물을 건축했다. 그러니 이제 천막도 가건물도 필요 없게 되었다. 3차원의 건물 하나만 해도 만족하다. / 개인 신앙도 그러하다. 차원을 높이면 옛것이 필요 없고, 만족하고, 영원하다.

25. 월명동의 차원을 높인 것들을 보아라.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하다. 다르다.